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9. No. 1, 2008

四象人에 대한 향기요법 적용을 위한 선호도 연구

강재현, 김근우, 구병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The study on the Preferences for cypress, rosemary, and lavender essential oil related to Sasang constitution

Jae-Hyeon Kang, Geun-Woo Kim, Byung-Soo Koo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preferences for cypress, rosemary, and lavender essential oil related to Sasang constitution

Methods : 79 patients and 70 students were tested by QCSSⅡ and their preferences for cypress, rosemary, and lavender essential oil were investigated . It is analyzed by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preference for essential oil.

Results :

1. The number of Taeyangin was 3, Taeumin was 20, Soyangin was 6, Soeumin was 50 in patients group and all Taeyangins prefered cypress essential oil, 50% of 20 Taeumins prefered cypress, 45.0% prefered rosemary, and the rest prefered lavender oil. Soyangins prefered cypress, rosemary, lavender oil with the same ratio. 34.0% of 50 Soeumins prefered cypress, 44.0% prefered rosemary, 22.0% prefered lavender oil.
2. The number of Taeyangin was 2, Taeumin was 13, Soyangin was 18, Soeumin was 37 in 70 students group and one of Taeyangin prefered rosemary, and the rest prefered lavender oil. 15.4% of 13 Taeumins prefered cypress, 38.5% prefered rosemary, 46.2% prefered lavender oil. 38.9% of 18 Soyangins prefered cypress, 33.3% prefered rosemary, 27.8% prefered lavender oil. 35.1% of 37 Soeumins prefered cypres, 35.1% prefered rosemary, 29.7% prefered lavender oil.

Conclusion : We don't hav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preference for essential oil between Sasang constitution.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Preference, essential oil

투고일 : 2/7 수정일 : 2/18 채택일 : 3/9
* 교신저자: 김근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번지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Tel : 031-710-3748 Fax : 031-710-3740 E-mail : kgwoo86@hanmail.net

Ⅰ. 서 론

향기요법은 약물이나 꽃의 자연향기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心身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인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치료방법 중의 하나이다[1,2]. 향기요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인도, 페르시아, 이집트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기원전 4세기 경 히포크라테스는 환자 자신의 자연치유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이요법, 일광욕, 마사지, 목욕 등을 조화롭게 실시하면서 각종 질병의 치료에 정유를 이용하였다[3].

향기요법 역시 약용식물에 대한 연구와 활용에서부터 이론적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저서에서 수많은 의용식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갈렌은 약용식물요법의 이론을 만들었고, 디오스코리데스는 의용식물을 수집 기록하여 오늘날 아로마테라피의 기본을 만들었다. 향기요법이란 용어는 1928년 프랑스 화학자 R. M. Gateffoss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Jean Valnet는 세계 제 2차 대전 당시 아로마 오일로 부상병을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법이 프랑스에서 정식 치료법으로 채택되는데 공헌하였다[4].

韓醫學에서 香을 이용한 치료법은 華佗 《華佗神醫秘傳》[5]으로부터 歷代醫書[6-14]에 香氣를 이용한 치료법들이 다수 소개되어 있는데, 香脂法[7-12], 香袋法[7,10,13], 香瓶法[7,9], 香衣法[7,10], 香枕法[9] 등의 방법으로 蕁麻疹, 皮膚搔痒症, 頭痛, 眩暈, 神經無力, 惡夢, 脚臭, 鼻淵鼻塞, 口臭, 口瘡, 黑斑, 瘡疥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15], 현재 중국에서는 鼻療法으로 체계화되어 기술하고 있다. 《名醫類案》[16]에서는 防風, 黃芪를 이용한 향기요법의 이론적 설명이 소개되어 있다.

한편 四象醫學의 기본 관점은 체질에 따라 생리와 병리 및 병증이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의학의 임상 활용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체질 판정은 정확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17]. 四象醫學은 心身醫學으로서 인간의 생리조직학적 기능에 의한 체질만을 다루는 의학이 아니라 心性的 정의 및 정신적 요구로서의 喜怒哀樂을 함께 다루고 체질별로 성격의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체질별로 성격의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체질생리와 병리설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8].

四象人은 각각 특징적 생리 및 병리를 지니고 있어 각각의 병증에 서로 다른 약물요법이 시행되는데, 이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임상에 활용하는 향기 정유액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四象人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四象人에 따른 향기 정유액에 대한 선호도 차이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기초 연구 단계로서 정상인 집단과 신경정신과 내원환자 집단에 대하여 일련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한 환자 중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후각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치매 등의 병증으로 인하여 설문지 작성이 어렵거나, 12세(초등학생) 미만 혹은 80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비강부의 질환으로 인하여 후각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조군으

로는 2006년 현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상기 기준에 맞는 학생 70명을 일반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상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향기액의 선택 및 흡입

향기 정유는 기존에 알려진 top note, middle note, base note 중에서 각기 신경정신계통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lavender, rosemary, cypress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유는 한의자연요법학회에서 공급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였다. 상기 정유를 증류수 50cc 당 7방울로 희석하여 ENT unit을 통하여 비강 내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흡입을 유도하였다. 각각의 향을 분무할 때의 시간간격은 5분으로 하였다.

2) 체질분류와 그에 따른 선호도 조사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를 작성하여 사상체질을 판별한 다음 cypress, rosemary, lavender의 세가지 오일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것 한 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3. 통계적 분석

모든 분석에는 Windows용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Ⅲ. 연 구 결 과

1. 일반인 집단 四象人별 향기 선호

일반인 집단 70명은 太陽人 2명, 太陰人 13명, 少陽人 18명, 少陰人 37명으로 나타났고, 太陽人은 rosemary와 lavender를 각 1명씩(50.0%) 선택하였다. 太陰人은 cypress 2명(15.4%), rosemary 5명(38.5%), lavender 6명(46.2%)으로 나타났다. 少陽人은 cypress 7명(38.9%), rosemary 6명(33.3%), lavender 5명(27.8%)으로 조사되었으며, 少陰人은 cypress 13명(35.1%), rosemary 13명(35.1%), lavender 11명(29.7%)으로 나타났다. 학생군 전체적으로는 cypress 22명(31.4%), rosemary 25명(35.7%), lavender 23(32.9%)명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일반인 집단 四象人별 향기 선호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합계
Cypress	0	2	7	13	22
Rosemary	1	5	6	13	25
Lavender	1	6	5	11	23
합계	2	13	18	37	70

Table 2. 일반인 집단 四象人별 향기 선호(기대도수)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합계
Cypress	0.628571	4.085714	5.657143	11.62857	22
Rosemary	0.714286	4.642857	6.428571	13.21429	25
Lavender	0.657143	4.271429	5.914286	12.15714	23
합계	2	13	18	37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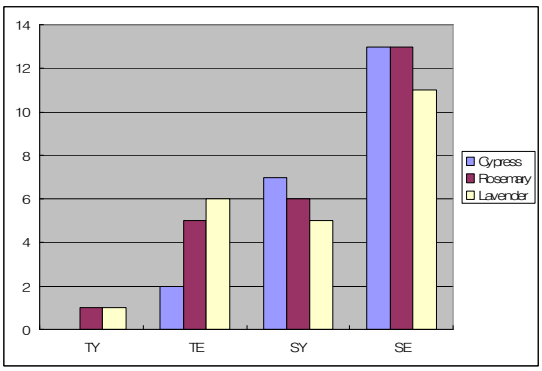


Fig. 1. 일반인 집단 四象人별 향기 선호

2 . 일반인 집단 남녀별 향기 선호

일반인 집단에서는 남자 54명 중 cypress 18명(33.3%), rosemary 19명(35.2%), lavender 17명(31.5%)으로 나타났고, 여자 16명 중 cypress 4명(25.0%), rosemary 6명(37.5%), lavender 6명(37.5%)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일반인 집단 남녀별 향기 선호

	남	여	합계
Cypress	18	4	22
Rosemary	19	6	25
Lavender	17	6	23
합계	54	16	70

Table 4. 일반인 집단 남녀별 향기 선호(기대도수)

	남	여	합계
Cypress	16.97143	5.028571	22
Rosemary	19.28571	5.714286	25
Lavender	17.74286	5.257143	23
합계	54	16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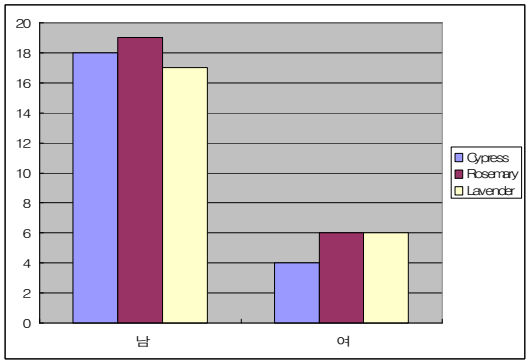


Fig. 2. 일반인 집단 남녀별 향기 선호

3. 환자 집단 四象人별 향기 선호

四象人별 향기 선호도에 있어 조사 대상 환자집단 79명 중 太陽人 3명, 太陰人 20명, 少陽人 6명, 少陰人 50명으로 나타났는데, 太陽人의 경우 총 3명 중 3명(100%)이 모두 cypress만을 선택했고, 太陰人은 총 20명 중 10명(50.0%)이 cypress, 9명(45.0%)이 rosemary, 1명(5.0%)이 lavender를 선택하였다. 少陽人은 총 6명이 cypress, rosemary, lavender 모두 2명씩(33.3%) 선택하여 고르게 분포하였고, 少陰人은 총 50명 중 cypress 17명(34.0%), rosemary 22명(44.0%), lavender 11명(22.0%)으로 조사되었다. 신경정신과 환자군 전체적으로는 cypress 32명(40.5%), rosemary 33명(41.8%), lavender 14명(17.7%)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환자 집단 四象人별 향기 선호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합계
Cypress	3	10	2	17	32
Rosemary	0	9	2	22	33
Lavender	0	1	2	11	14
합계	3	20	6	50	79

Table 6. 환자 집단 四象人별 향기 선호(기대도수)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합계
Cypress	1.21519	8.101266	2.43038	20.25316	32
Rosemary	1.253165	8.35443	2.506329	20.88608	33
Lavender	0.531646	3.544304	1.063291	8.860759	14
합계	3	20	6	50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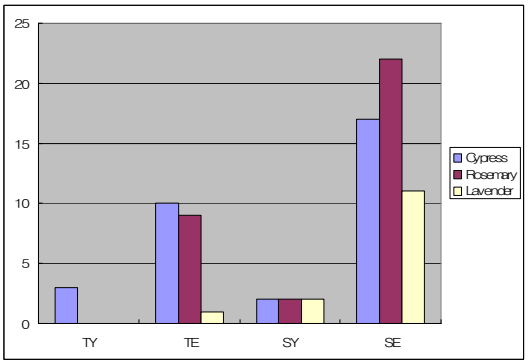


Fig. 3. 환자 집단 四象人별 향기 선호

4. 환자 집단 남녀별 향기 선호

남녀별 향기 선호도에서는 환자집단 남자 27명 중 cypress 12명(44.4%), rosemary 10명(37.0%), lavender 5명(18.5%)으로 조사되었고, 여자 52명 중 cypress 20명(38.5%), rosemary 23명(44.2%), lavender 9명(17.3%)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환자 집단 남녀별 향기 선호

	남	여	합계
Cypress	12	20	32
Rosemary	10	23	33
Lavender	5	9	14
합계	27	52	79

Table 8. 환자 집단 남녀별 향기 선호(기대도수)

	남	여	합계
Cypress	10.93671	21.06329	32
Rosemary	11.27848	21.72152	33
Lavender	4.78481	9.21519	14
합계	27	52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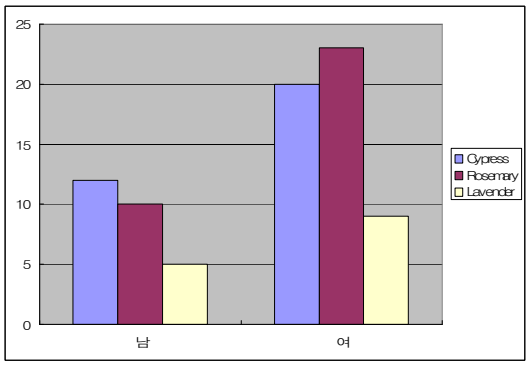


Fig. 4. 환자 집단 남녀별 향기 선호

5. 환자 집단 질환별 향기 선호

질환별로 조사한 환자군의 향기 선호도에서는 氣鬱症, 두통, 불면, 홧병 등 주요 4개 질환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기울증으로 진단된 14명의 환자 중 cypress를 선호한 사람은 5명(35.7%), rosemary를 선호한 사람은 7명(50.0%), lavender를 선호한 사람은 2명(14.3%)으로 조사되었다. 두통으로 진단된 21명의 환자 중에서는 cypress 11명(52.4%), rosemary 9명(42.9%), lavender 1명(4.8%)으로 나타났다. 불면으로 진단된 7명의 환자 중에서는 cypress 2명(28.6%), rosemary 4명(57.1%), lavender 1명(14.3%)으로 조사되었다. 홧병으로 진단된 26명의 환자 중에서는 cypress 12명(46.2%), rosemary 10명(38.5%), lavender 4명(15.4%)으로 나타났다.

Table 9. 환자 집단 질환별 향기 선호

	건망	근척육순(筋惕肉瞤)	기울증	두통	불면	전간	정충경계	현훈	홧병
Cypress	1		5	11	2				12
Rosemary		1	7	9	4	1	1	1	10
Lavender		2	2	1	1	1	2	1	4
합계	1	3	14	21	7	2	3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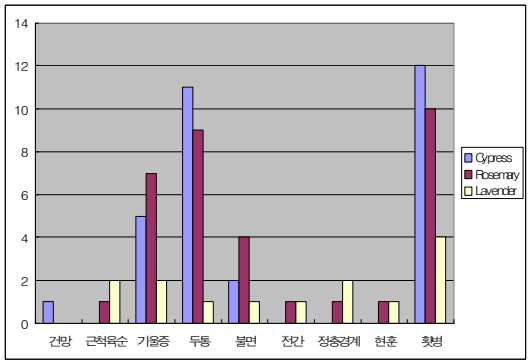


Figure 5. 환자 집단 질환별 향기 선호

Ⅳ. 고 찰

향기요법은 약물이나 꽃의 자연향기를 이용하여 후각계를 이용하여 대뇌에 직접 향을 도

달시킴으로써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心身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치료방법 중의 하나이며[1,2], 주로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거나 신경계에 작용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마음과 정서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2]. 이러한 향기요법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의 한 분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시각계의 경로가 망막, 시신경섬유, 외측슬상체, 시교차(optic chiasm), 시삭(optic tract)을 거쳐 대뇌피질의 시각영역까지인데 반해, 후각계는 사고의 중추인 대뇌피질이 아니라 정서를 주관하는 대뇌변연계로 최종 연결된다. 후각계는 해부학적으로 후각망울에서 후각신경은 2차 뉴런이 되어 승모세포 및 속모세포의 수상돌기와 시냅스를 이룬다. 승모세포 축삭돌기는 후각로를 형성하고 다른 후각로와 연접하여 후각 신호를 여러 곳에 전달한다. 후각로에서 직접 후각 신호를 받는 부위는 반대측 뇌의 후각망울, 전이상영역, 이상엽, 해마들이며 시상하부 자율신경핵은 편도핵을 통해 간접으로 정보를 받는다. 후각망울로부터 중추로 흥분이 전달되는 동안, 후각신호는 중추의 원심성 조정을 받아 수정된다. 후각신호가 변연계에 전달됨으로써 후각의 정서감정적 요소가 가미되어, 냄새의 질에 따라 즐거움 또는 역겨움 등 감정이 변화한다[19-23].

Lavender는 향기정유 중 인지기능 효과, 진정, 불안감소, 행동장애 조절, 초조행동 조절, 공격성 감소, 초조감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특히 향기요법에 적용한 향유 중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향유라고 보고되고 있으며,[24] Rosemary 정유는 임상연구를 통하여 인체에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쾌하고 깨끗하며 달콤한 향으로 표현된다. 주로 심신의 피로와 긴장완화 및 근육이완, 그리고 여드름 등의 피부 질환의 증상개선에 효과적이다[25]. Cypress 정유는 심리적으로 진정작용이 있으며 혈관 수축작용 및 체액 불균형의 개선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26] 국내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韓醫學에서 香을 이용한 치료법은 華佗 《華佗神醫秘傳》[5]으로부터 歷代醫書[6-14]에 香氣를 이용한 치료법들이 다수 소개되어 있는데, 香脂法[7-12], 香袋法[7,10,13], 香甁法[7,9], 香衣法[7,10], 香枕法[9] 등의 방법으로 蕁麻疹, 皮膚搔痒症, 頭痛, 眩暈, 神經無力, 惡夢, 脚臭, 鼻淵鼻塞, 口臭, 口瘡, 黑斑, 瘡疥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15], 현재 중국에서는 鼻療法으로 체계화되어 기술하고 있다. 이 鼻療法은 《華佗神醫秘傳》[5],《千金要方》[7], 《外臺秘要》[11], 《聖濟總錄》[8], 《壽世保元》[9], 《本草綱目》[10], 《東醫寶鑑》[14]等에 기록되어 있고, 그 治療方法도 매우 다양하며, 주로 昏厥, 中風救急, 疫病, 腫瘡 等의 치료와 美容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26-28]. 香氣療法의 원리에 대해 《素問・氣厥論》[29]에는 "膽移熱於腦 則辛頗鼻淵", "蓋腦爲精髓之海 髓者骨之充也 腦者陰也 故腦滲則爲涕"라 하여 腦와 鼻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素問・五臟別論》[29]에 "五氣入鼻 藏於心肺"라 하였는데, 《難經・四十難》[30]에서 "心主鼻 故令鼻知香臭"라고 해석하여 鼻가 香氣를 맡는 것이 心의 작용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本草綱目》[10]에서는 "脾胃喜芳香 可以養鼻是也", "脾喜芳香 肝宜辛散 脾氣舒則三焦通利而精氣和 肝鬱散則 營衛流行於病邪解"라 하였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4,5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이 芳香物質을 醫學的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정신과 영혼에까지 작용하는 치유법으로 여겨지면서 로마제국과 전유럽으로 확산되었으며[2,26] 20세기 초 프랑스

의 Rene Gatte Fossè에 의해 “Aromatherapie (향기요법)”라고 정의되었고 1970년대에 자연의학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였다[2].

四象醫學은 心身醫學으로서 인간의 생리조직학적 기능에 의한 체질만을 다루는 의학이 아니라 심성적 정의 및 정신적 요구로서의 喜怒哀樂을 함께 다루고 체질별로 성격의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체질별로 성격의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체질생리와 병리설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8].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사상체질별 관절염[31], 파킨슨병[32]과 같은 질병에 관한 연구, 四象人의 용모에 관한 설문분석의 연구[17], 그리고 헤어스타일[33] 등의 취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특정 방향에 대한 선호도와 사상체질에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조사 결과, 四象人별 향기 선호도에 있어 조사 대상 환자집단 79명 중 太陽人 3명, 太陰人 20명, 少陽人 6명, 少陰人 50명으로 나타났는데, 太陽人의 경우 총 3명 중 3명(100%)이 모두 cypress만을 선택했고, 太陰人은 총 20명 중 10명(50.0%)이 cypress, 9명(45.0%)이 rosemary, 1명(5.0%)이 lavender를 선택하였다. 少陽人은 총 6명이 cypress, rosemary, lavender 모두 2명씩(33.3%) 선택하여 고르게 분포하였고, 少陰人은 총 50명 중 cypress 17명(34.0%), rosemary 22명(44.0%), lavender 11명(22.0%)으로 조사되었다. 신경정신과 환자군 전체적으로는 cypress 32명(40.5%), rosemary 33명(41.8%), lavender 14명(17.7%)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반인 집단 70명은 太陽人 2명, 太陰人 13명, 少陽人 18명, 少陰人 37명으로 나타났고, 太陽人은 rosemary와 lavender를 각 1명씩(50.0%) 선택하였다. 太陰人은 cypress 2명(15.4%), rosemary 5명(38.5%), lavender 6명(46.2%)으로 나타났다. 少陽人은 cypress 7명(38.9%), rosemary 6명(33.3%), lavender 5명(27.8%)으로 조사되었으며, 少陰人은 cypress 13명(35.1%), rosemary 13명(35.1%), lavender 11명(29.7%)으로 나타났다. 학생군 전체적으로는 cypress 22명(31.4%), rosemary 25명(35.7%), lavender 23(32.9%)명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를 위하여 조사한 남녀별 향기 선호도에서는 환자집단 남자 27명 중 cypress 12명(44.4%), rosemary 10명(37.0%), lavender 5명(18.5%)으로 조사되었고, 여자 52명 중 cypress 20명(38.5%), rosemary 23명(44.2%), lavender 9명(17.3%)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집단에서는 남자 54명 중 cypress 18명(33.3%), rosemary 19명(35.2%), lavender 17명(31.5%)으로 나타났고, 여자 16명 중 cypress 4명(25.0%), rosemary 6명(37.5%), lavender 6명(37.5%)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조사한 환자군의 질환별 향기 선호도에서는 기울증, 두통, 불면, 홧병 등 주요 4개 질환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기울증으로 진단된 14명의 환자 중 cypress를 선호한 사람은 5명(35.7%), rosemary를 선호한 사람은 7명(50.0%), lavender를 선호한 사람은 2명(14.3%)으로 조사되었다. 두통으로 진단된 21명의 환자 중에서는 cypress 11명(52.4%), rosemary 9명(42.9%), lavender 1명(4.8%)으로 나타났다. 불면으로 진단된 7명의 환자 중에서는 cypress 2명(28.6%), rosemary 4명(57.1%), lavender 1명(14.3%)으로 조사되었다. 홧병으로 진단된 26명의 환자 중에서는 cypress 12명(46.2%), rosemary 10명(38.5%), lavender 4명(15.4%)으로 나타났다.

四象人별로 조사한 환자군과 일반인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0.05로 가정했을 경우 p-value가 각각 0.183384과 0.746962로 나타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빈도만을 볼 때, 일반

인군에서는 四象人별 향기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았고, 다만 少陽人에서만 cypress 선호도가 낮을 뿐으로, 편차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이에 비하여 환자군에서는 뚜렷하지는 않아도 선호 가능성이 있는 향기 정유가 나타났는데, 이는 p-value가 두 군 모두 유의수준에 훨씬 못 미치기는 하나, 절대값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루어서도 유추할 수 있다. 太陽人에서는 cypress, 太陰人에서는 cypress와 rosemary, 少陰人에서는 rosemary가 다소 주목할 만한 빈도를 나타냈다. 太陽人과 太陰人에서 base note로 향이 무거우며 진정 효과를 지닌 cypress를 선호하는 반면, 少陰人에서는 middle note로 향이 다소 가벼우며 각성과 기분 전환의 효능을 지닌 rosemary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四象人별 性情과 향기의 특성 간 상호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된다.

남녀별로 조사한 환자군과 일반인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0.05로 가정했을 경우 p-value가 각각 0.822043과 0.807624로 나타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정상군으로 가정한 학생군에서 남녀별, 향기 종류별 특정 향 선호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인에서는 어느 향이든 남녀를 불문하고 특정 향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자군에서는 일반인군에 비해 lavender를 선호하는 사람이 뚜렷이 적게 나타나, 심리적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문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신경정신과 환자군에서 양호한 신경안정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lavender의 향을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면 선호하지 않는 lavender 향을 어떠한 다른 정유와 혼합하여 거부감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질환별로 조사한 환자군의 질환별에서는 환자수가 1명에서 3명까지 소수인 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수가 많았던 기울증, 두통, 불면, 홧병 등 주요 4개 질환에서 기울증과 불면은 rosemary > cypress > lavender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고, 두통과 홧병은 cypress >rosemary>lavender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는데, 기울증 및 불면의 선호도 순서는 少陰人 환자군 전체의 선호도 순서와 유사하고, 두통 및 홧병의 선호도 순서는 太陰人 환자군 전체의 선호도 순서와 유사하다. 유의성은 없으나, 많은 표본수를 조사할 경우 기울증 및 불면은 少陰人에서, 두통 및 홧병은 太陰人에서 발생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기울증과 불면에서 middle note에 대한 선호가 높고 두통과 불면에서 base note에 대한 선호가 높은지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四象人의 체질에 따른 향기요법의 선별적 적용 가능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부의 건강한 일반인과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을 감별한 다음 세 가지 정유향의 四象人에 따른 선호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환자집단 79명 중 太陽人 3명, 太陰人 20명, 少陽人 6명, 少陰人 50명으로 나타났는데, 太陽人의 경우 총 3명 중 3명 (100%)이 모두 cypress만을 선택했고, 太陰人은 총 20명 중 10명 (50.0%)이 cypress, 9명 (45.0%)이 rosemary, 1명 (5.0%)이 lavender를 선택하

였다. 少陽人은 총 6명이 cypress, rosemary, lavender 모두 2명씩 (33.3%) 선택하여 고르게 분포하였고, 少陰人은 총 50명 중 cypress 17명 (34.0%), rosemary 22명 (44.0%), lavender 11명 (22.0%)으로 조사되었다. 신경정신과 환자군 전체적으로는 cypress 32명(40.5%), rosemary 33명(41.8%), lavender 14명(17.7%)으로 조사되었다.

2. 일반인집단 70명은 太陽人 2명, 太陰人 13명, 少陽人 18명, 少陰人 37명으로 나타났고, 太陽人은 rosemary와 lavender를 각 1명씩 (50.0%) 선택하였다. 太陰人은 cypress 2명 (15.4%), rosemary 5명(38.5%), lavender 6명(46.2%)으로 나타났다. 少陽人은 cypress 7명(38.9%), rosemary 6명(33.3%), lavender 5명(27.8%)으로 조사되었으며, 少陰人은 cypress 13명(35.1%), rosemary 13명 (35.1%), lavender 11명(29.7%)으로 나타났다. 학생군 전체적으로는 cypress 22명 (31.4%), rosemary 25명(35.7%), lavender 23(32.9%)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나타난 일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四象人에 따른 특정 향기에 대한 체질별 선호도를 유의하게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시험군 선정 및 적용 정유의 선택의 기준을 보강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앤드류 스텐웨이. 자연요법백과. 서울:하남출판사. 1994:116-117.
2. 로버트 티저랜드. 향기요법. 서울:글이랑. 1997:57,118-120.
3. 이성희. 향기요법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우울과 피로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 간호학회지. 2002;8(3): 435-445.
4. 이용호. 향기요법이란 무엇인가?. 산업보건. 2003;vol 180: 43-46.
5. 華 佗. 華佗神醫秘傳. 서울: 杏林書院. 1958:335-336.
6.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醫道韓國社. 1976:26.
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大星文化社. 1992:139-141.
8. 趙 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78:1754-1760,1765-1771.
9. 龔廷賢. 壽世保元. 서울:醫聖堂. 1993:307,661,702.
10.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醫聖堂. 993:895, 900, 902, 910, 1941-1942, 1945, 1965-1968.
11. 王 燾. 外臺秘要. 서울:大星文化社. 1991:337-338,351.
12. 朱 肱. 肘後備急方. 서울:麗江出版社. 1994:367.
13. 吳克潛. 古今醫方集解. 上海:上海大衆書局. 1980:1144.
14. 許 浚.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1990:175-177,363.
15. 吳賢珠. 香氣療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 惠和醫學, 1996; 5(1): 261-281.
16. 구병수 옮김, 강관 저. 名醫類案. 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2005:17.
17. 이의주 등. 四象人의 容貌에 관한 설문분석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3;27(1):130-137.
18. 고병희. 사상체질별 성격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2;14(2):64-76.
19. 金祐謙. 신경・근・감각. 서울:생명의 이치. 1993:278-279,283-284.
20. 대한비과학회. 임상비과학. 서울:一潮閣.

1997:51-56.
21. 성호경 외. 생리학. 서울:의학문화사. 1996:620-625.
22. 이종삼 외. 生理學. 서울:圖書出版 大學書林. 1998:337.
23. Malcolm B. Carpenter. 신경해부학. 서울: 高文社. 1993:347-354.
24. 이선영. 라벤더 향기요법 손마사지가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정서 및 공격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002;35(2):303-312.
25. 이성희. 四象體質別 香療法의 效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4;6(3): 372-382.
26. 李世熙. 아로마테라피. 서울:弘益齋. 1995:29-32,40-45.
27. 高樹中. 中醫鼻療法全書. 北京:華夏出版社. 1994:1-12.
28. 錢俊華. 中醫鼻療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24-44.
29.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解釋. 서울:成輔社. 1980:52, 88, 102, 207, 293, 325, 361, 381, 443, 474, 551, 593, 702.
30. 秦越人著. 凌耀星主編. 難經校註.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1:72.
31. 김수영 등. 사상체질에 따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대조군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4;21(1):86-98.
32. 정지철 등. 파킨슨 환자의 사상체질 및 UPDRS 분포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22(4):47-54.
33. 최정명 김주덕. 헤어스타일과 사상체질의 상관관계. 한국미용학회지. 2004;10(1):4,53-64.